

수정하지 않는다.

전환사채는 상환할증금 지급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다소 다르다. (예 3)과 (예 4)를 통해 상환할증금 미지급조건의 전환사채와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의 회계처리를 각각 설명한다.

예 3

상환할증금 미지급조건 전환사채의 발행시 회계처리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 액면금액 : ₩1,000,000
- 표시이자율 : 연 2% (매 연도 말 후급)
- 일반사채 시장수익률 : 연 5%
- 상환기일 : 20×3. 12. 31.
- 원금상환방법 :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을 일시상환

$$\text{전환사채 발행가액} = ₩1,000,000$$

$$\begin{aligned} \text{일반사채 현재가치} &= ₩20,000 \times 2.72325(\text{기간 3, 5\%, 연금현재가계수}) \\ &\quad + 1,000,000 \times 0.86384(\text{기간 3, 5\%, ₩1의 현재가계수}) \\ &= ₩918,305 \end{aligned}$$

$$\text{전환권대가} = ₩1,000,000 - 918,305 = ₩81,695$$

만일 전환사채가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였다면 ₩918,305에 발행되었을 것인데, 전환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일반사채보다 ₩81,695 만큼 더 많은 대가를 수령하였다. 우선 전환권 대가를 제외한 일반사채 부분에 대해서만 발행시 분개를 한다면 다음과 같다.

(차) 현	금	918,305		(대) 전 환 사 채	1,000,000 ... ①
	전 환 권 조 정	81,695			

위의 분개에서 전환권조정은 일반사채에서의 사채할인발행차금과 유사한 평가계정으로서 향후 상각하여 이자비용에 반영한다. 그런데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수령한 현금은 ₩918,305 이 아니라 ₩1,000,000이므로 차이 ₩81,695에 대한 별도의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차) 현	금	81,695		(대) 전 환 권 대 가	81,695 ... ②
-------	---	--------	--	---------------	--------------

즉, 일반사채를 발행한 경우보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81,695 만큼 현금을 더 수령하며 이를 전환권대가로 하여 자본항목으로 처리한다. 위의 분개 ①과 ②를 하나의 분개로 합



치면 다음과 같은 전환사채 발행시의 분개가 된다(이하에서는 합친 분개로 설명한다).

(차) 현	금	1,000,000	(대) 전 환 사 채	1,000,000
전 환 권 조 정		81,695	전 환 권 대 가	81,695

(예 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환할증금 미지급조건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현	금	xxx	(대) 전 환 사 채	xxx
전 환 권 조 정		xxx	전 환 권 대 가	xxx

전환권조정은 전환사채에 대한 차감평가계정으로서 전환사채 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자비용에 가산한다. 이자비용 인식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이 자 비 용	xxx	(대) 현	금	xxx
		전 환 권 조 정		xxx

전환권대가는 자본 항목으로 구분한 후 전환권이 행사되어 주식을 발행할 때 행사된 부분만큼 다른 자본 항목(예: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1032.AG32).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예 4)를 통해서 설명한다.

예 4 상환할증금 지급조건 전환사채의 발행시 회계처리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 액면금액 : ₩1,000,000
- 표시이자율 : 연 2% (매 연도 말 후급)
- 일반사채 시장수익률 : 연 5%
- 상환기일 : 20×3. 12. 31.
- 원금상환방법 :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06.243%를 일시상환

(예 3)과 차이점은 전환사채의 만기일에 액면금액의 106.2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전환사채를 상환하기 때문에 결국 액면금액의 6.243%에 해당되는 상환할증금(즉, ₩62,430)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전환권대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전환사채 발행가액} = \text{₩}1,000,000$$

$$\begin{aligned} \text{일반사채 현재가치} &= \text{₩}20,000 \times 2.72325(\text{기간 } 3, 5\%, \text{ 연금현재가계수}) \\ &\quad + 1,000,000(\text{액면금액}) \times 0.86384(\text{기간 } 3, 5\%, \text{ ₩1의 현재가계수}) \\ &\quad + 62,430(\text{상환할증금}) \times 0.86384(\text{기간 } 3, 5\%, \text{ ₩1의 현재가계수}) \\ &= \text{₩}972,235 \end{aligned}$$

$$\text{전환권대가} = \text{₩}1,000,000 - 972,235 = \text{₩}27,765$$

만일 전환사채가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였다면 ₩972,235에 발행되었을 것인데, 전환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일반사채보다 ₩27,765만큼 더 많은 대가를 수령하였다. 우선 전환권대가를 제외한 일반사채 부분에 대해서만 발행시 분개를 한다면 다음과 같다.

(차) 현금	972,235	(대) 전환사채	1,000,000 ...①
전환권조정	90,195	사채상환할증금	62,430

그런데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수령한 현금은 ₩972,235가 아니라 ₩1,000,000이므로 차이 ₩27,765의 현금수령에 대한 별도의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차) 현금	27,765	(대) 전환권대가	27,765 ...②
--------	--------	-----------	-------------

위의 분개 ①과 ②를 하나의 분개로 합치면 다음과 같은 전환사채 발행시의 분개가 된다 (이하에서는 합친 분개로 설명한다).

(차) 현금	1,000,000	(대) 전환사채	1,000,000
전환권조정	90,195	사채상환할증금	62,430
		전환권대가	27,765

(예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	×××	(대) 전환사채	×××
전환권조정	×××	사채상환할증금	×××
		전환권대가	×××

전환권조정은 전환사채에 대한 차감평가계정으로 전환사채 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자비용에 가산한다. 이자비용 인식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보론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 상환할증금의 의미

본장 본문의 (예 4)의 전환사채를 대상으로 하여 상환할증금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예 4)에서 일반사채 시장수익률이 5%라고 가정하였는데, 이 의미는 무엇인가? 아래의 계산식을 보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text{₩}972,235 = \frac{20,000}{1.05} + \frac{20,000}{(1.05)^2} + \frac{20,000 + 1,000,000 + 62,430}{(1.05)^3} \quad \dots \textcircled{1}$$

앞의 계산식 ①의 의미를 살펴보자. 사채 투자자는 20×1년 초에 사채를 ₩972,235에 취득한 후 매년 말 ₩20,000씩 이자를 3회 수령하고, 20×3년 말에 ₩1,062,430을 수령함으로써 사채기간 동안 연 5%의 수익을 실현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예 4)에서의 전환사채는 ₩972,235에 발행한 것이 아니라 ₩1,000,000에 발행한 것이므로(즉, 사채 투자자가 ₩1,000,000에 취득한 것이므로) 위의 계산식 ①의 좌변을 ₩1,000,000으로 놓고 우변의 할인율(i)을 다음과 같이 다시 계산할 수 있다.

$$\text{₩}1,000,000 = \frac{20,000}{(1+i)} + \frac{20,000}{(1+i)^2} + \frac{20,000 + 1,000,000 + 62,430}{(1+i)^3} \quad \dots \textcircled{2}$$

위의 계산식 ②에서 할인율(i)을 계산하면 4%가 된다. 즉, 사채투자자가 20×1년 초에 사채를 ₩1,000,000에 취득한 후 매년 말 ₩20,000씩 이자를 3회 수령하고, 20×3년 말에 ₩1,062,430을 수령하면 사채기간 동안 연 4% 수익을 실현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연 수익률 4%를 보장수익률이라고 한다. (예 4)에서는 명시적으로 보장수익률이 몇 %인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상환할증금이 액면금액의 6.243%라고 하였기 때문에 상환할증금으로부터 전환사채의 보장수익률이 4%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다.

반대로 보장수익률이 몇 %인지 알 수 있다면 향후 상환할증금을 얼마나 지급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상환할증금(x)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